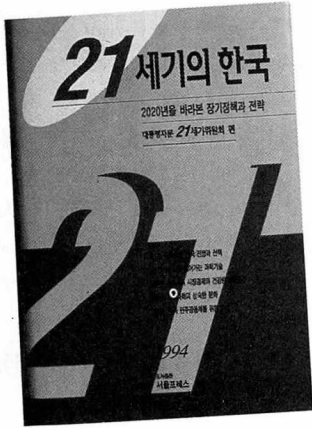


미래의 한국 위한 방대한 청사진

21세기위원회 펴낸 「21세기의 한국」



21세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89년 6월 발족된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가 지난 5년간의 연구결과를 책으로 묶었다. 「21세기의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이 그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장기국가목표 설계보고서이다. 또한 우리 정부와 민족이 지향해야 할 장기정책목표, 그리고 그 추진전략을 모은 건의서이자 청사진이기도 하다.

위원회측은 21세기의 시대적 특성을 "새로운 가치와 구조가 배태되고, 갈등이 증폭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쟁시대"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민족에게는 21세기 통일민족사회를 건설하여 민족자존시대를 전개하고 고도성장에 따른 불균형을 극복해야 할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따라 이 보고서의 종합적인 주제는 "21

세기의 한국의 선택"으로 삼았으며, 국가발전 추진목표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룬 통일된 한민족 민주공동체의 건설"로 잡았다고 이상우교수는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각 영역별 최상위의 달성목표를 세계에 기여하는 민주국가, 국토가 균형발전된 통일국가,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국가로 정하고 성장과 분배의 조화, 개발과 보전의 조화, 개인과 사회의 조화, 국가와 세계의 조화 등 "조화"를 모든 전략설계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다섯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편 '세계속의 한국: 전망과 선택'은 보고서 전체에 대한 개요 및 서론에 해당된다. 21세기의 국내외의 정세 전망과 민족사적 의의를 개관하고 국가발전목표, 정책, 핵심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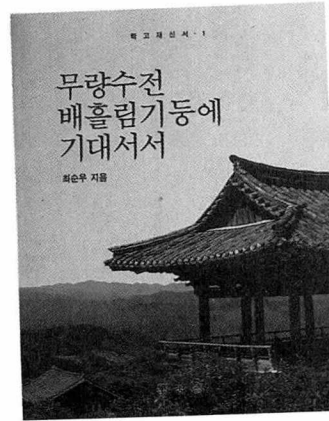
제2편에서 5편까지는 각각 과학기술, 경제, 사회문화, 정치발전·외교안보·통일문제 등 각 영역별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각론편이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지, 공동체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풍요속의 고른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내년초쯤 페이퍼백 보급판과 영영판으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위원회측은 말했다. 또한 이미 개정판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프레스/A5신/1,256면/29,000원

우리문화재 아름다움 밝힌 혜곡의 명문

최순우 지음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평생(1916~1984년)을 박물관인으로 살아 오면서 뛰어난 안목과 빼어난 문장으로 한국미의 실체를 명료히 밝혀왔던 혜곡 최순우(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글모음이다. 2년전, 그가 생전에 써왔던 글들을 모두 모아 5권짜리 전집으로 펴낸 바 있는데(본지 111호), 이 책은 그 전집에 수록된 글 가운데서 전문적이고 어려운 글이 아닌,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에 '비로소' 눈뜨기 시작한 요즘의 대중독자들을 위해 혜곡 미학의 '평이한' 정수를 가려 뽑은 것이다.

수록같은 건축, 불상, 석탑, 금속공예, 목칠·민속공예, 신라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조선전·후·말기의 회화, 초상화·불화·민화, 한국미의 산책, 한국미 한국의 마음 등으로 고루 나뉘신고 있는데, 그외에도 '흔하지 않은 이야기' '초맛' '푸른 서울의 꿈'과 같은 생활 속의 단상도 몇편 들어 있어 이 한

권에서 혜곡의 미술사학자로서의 면모뿐 아니라 인간적 풍모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혜곡은 후학들에 의해 "제학자들의 형식분석, 편년연구 등에 치우친 미시적 한계를 총체적 인식력으로 뛰어넘" (이주헌 미술평론가)은 "한국미의 탐색자였으며 대변인, 숨겨진 미적가치를 발굴해내는 대안목"(유홍준 영남대교수)이었으며 "그의 글을 읽은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새기게 되고 한국미에 대한 눈이 트이게 된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고 높이 칭송받는 미술사학계의 거목이었다.

이 책에 소개된 문화재·유물들은 사실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어서 목차만 훑어보면 상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간결하되 호소력 있고, 담백하되 여운을 진하게 풍기는" 그의 글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같은 대상이어도 크게 달리 읽힐 것이다. 즉, 같은 유물도 전문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기술하고 느끼는지를 독자 자신의 안목과 비교해보며 읽는다는지, 우리 문화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물론 전문가들조차도 자부심이 크게 덜 하던 6, 70년대에 혜곡이 얼마나 큰 확신과 지극한 애정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며 가치를 밝혀냈는가를 감안하고 읽는다면 그의 예지력과 용기에 새삼 존경을 느끼게 된다.

좀 긴 듯한 책체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은 국내의 미술사학들에 의해 "국보0호로 지정돼야 한다"고 얘기될 정도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주위의 자연경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한국미의 절정의 한 극지다.

학교재/A5변형/456면/8000원

호산방은 30년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주요취급품목

- 양장본
 - 문화, 역사, 종교
 - 연극, 영화, 음악
 - 신문, 잡지
- 한자본
 - 문집, 족보
 - 간찰, 필사본
- 비도서
 - 영화필름, 고음반
 - 각종 생활사자료

주요업무

- 특수자료실, 기업박물관의 자료수집 대행
- 출판, 광고기획 자료제공

“ 고서에 관한 어떠한 상담도 환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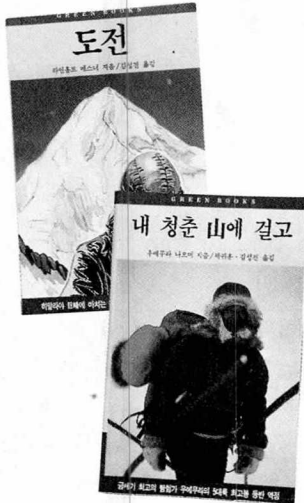
호산방 고서 중에서

호산방
HOSANBANG Rare Books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아케이드 7호
전화 722-8029, 723-7431 팩스 722-6642
<광화문 우체국옆 한일은행 건물>

산악도서 중심의 새로운 문고본

평화출판사 펴냄 '그린박스' 시리즈



래서 반갑다. 어려운 일에 대해 개탄만 하지 않고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중 배낭이나 호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이 시리즈는 기존의 문고판에서 가로의 길이를 더 줄인 '포켓판'이다. 비닐 커버 표지를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평소 산악인에게 널리 읽혀왔던 도서들을 중심으로 묶을 예정이다. 그 1차분으로 라인홀트 메스너의 「도전」, 우에무라 나오미의 「내 청춘 산에 걸고」, 이노우에 야스시의 「빙벽」이 나왔다.

“산악인들의 조용한 사랑을 받아왔던 평화출판사의 산악도서가 포켓판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소량생산에 따른 가격부담으로 책의 원활한 보급이 어려웠던 까닭에, 문고판 발간을 통해 동서양에 걸친 불후의 산악명저들을 독자 여러분 곁으로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문고판 시리즈는 틈틈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본문 끝에 '독서 노트'란을 두어 책에 대한 감상, 수상 등을 수시로 적도록 했습니다.

즉, 휴대하기 쉽고 펼쳐보기 편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문고판 발간의 취지입니다. (후략)”

간행사의 일부이다. 출판사측은 문고판의 위기가 저렴한 가격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한 모양이다. 그래서 책값이 3500원 내외 4000원 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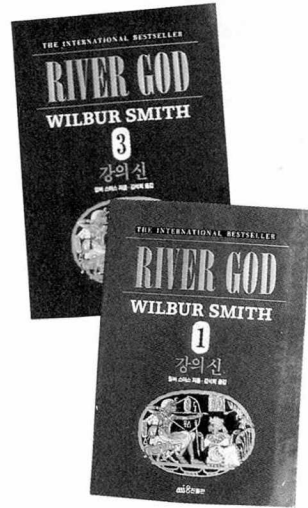
평화출판사/A6변형/각 320면 내외/가격 본문 참조

독서의 전위대, 학문·예술 만인화의 교두보인 문고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80년대 들어 침체기를 맞이하다니, 근자에 이르러서는 사망진단서를 뿔 태세다. 민음사의 '세계시인선'과 박영사의 '박영문고'가 절판을 '선언'했다. 국내 유수의 '문고'들은 더 이상 새 책을 찍어내지 않고 있다. 을유문화사의 '을유문고'와 과학·예술분야의 전문 문고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서점에서는 이윤이 박하다는 이유로 찬밥 대하듯 팔시한다. 독자들은 요즘 현란한 광고가 뒷받침되는 요란한 책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문고본의 미덕과 장점은 시장논리에 그 몸을 맡겨두기에는 너무 지중하다는 의견이 많다.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해 문고본출판을 육성·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너무 높고 많아서 진부한 지경이다. 최근 선보인 평화출판사의 '그린 박스' 시리즈는 그

고대이집트 무대로 삼은 '피서용' 장편소설

윌버 스미스 지음 「강의 신」



1월 5일 이집트의 고고학자가 '왕가의 계곡'에서 여왕의 무덤 하나를 발굴하게 되는데, 거기서 초서체로 적힌 두루마리 문서들이 발견된다. 물론 '작가의 말'도 허구이지만, 이 소설은 그 두루마리 문서들을 번역했다는 식으로 '거짓말' (?)을 늘어놓음으로써 현실과 허구를 가늠하지 못하게 한다.

소설은 두 개의 축을 서로 맞물면서 진행되는. 타누스와 로스트리스라는 선남선녀를 통한 인간의 무한한 사랑이 그 하나고, 이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잔혹성이 그 둘이다. 당시 이집트는 상하 왕국으로 분열된 채 내전과 화적패의 약탈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정치적으로 무력하고 성적으로 허약한 파라오는 국력을 강화해줄 인물로 타누스를 선택하고, 후계자를 낳아줄 아내로 로스트리스를 선택한다. 이리하여 두 연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나누어 가진 채 이별한다.

그러나 두 남녀는 궁형을 당한 노예 타이타의 도움을 받아 질곡의 운명을 헤쳐나간다. 로스트리스는 왕자를 낳고, 타누스는 산적을 무찌러 개선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뿐, 유목민족인 히소스족의 침략을 받는다.

전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화자 타이타는 로스트리스의 아버지이자 이집트의 재상인 인테프 경의 성적 노리개. 하지만 점성술은 물론 수리, 의학, 예술, 병법 등에 능해 위기에 빠진 주인공들을 자주 구해준다. 타이타의 입을 통해 이집트 풍속사를 읽는 재미도 좋은 뿐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날 한번 잡으면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재미가 이 소설의 가장 큰 미덕임에 분명하다.

웅진출판/A5신/각 324면 내외/각 5500원

요즘 날씨가 동전의 앞 뒤 면 같다. 폭풍 쪼거나 비가 내리거나. 확실히 여름이 되었다는 증거일텐데, 이와함께 불쾌지수는 날로 높아만 간다. 이러저러한 사회적 상황도 일조를 해주는 불쾌한 날들이다. 이런 날이면 시원하고 통쾌한 소설 한 편을 읽는 것이 어울리는데, 「강의 신」(윌버 스미스 지음, 김석희 옮김)은 어느 정도 그 격을 갖춘 책이라 할 만하다.

이 책은 독자들을 기원전 18세기의 고대 이집트로 데려간다.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스미스의 여름여행 안내는 한껏 스타일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또한 이집트의 풍속이 소설 속에 자주 드러나는데, 신의 지위에 이른 파라오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 타락한 남색제도, 씩씩이 나오는 신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당시의 축제와 연극 등이 그것이다.

소설은 '작가의 말'부터 시작된다. 1988년

'원고뱅크' 를 아십니까?

'원고뱅크'란 출판전문기획사, 원고대행사의 기획안과 원고를 공개적으로 경매하는 시장입니다.

「출판정보」가 1994년 5월 31일부터 '원고뱅크' 코너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기획대행사가 완성된 기획안과 원고를 「출판정보」에 게재하고, 출판사가 기획대행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인맥을 통한 필자섭외, 원고청탁방식에서 탈피하여 좀더 다양한 원고를 선택할 수 있는 통로의 필요성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출판정보」는 원고와 기획안을 가지고 있는 전문·비전문작가들로 범위를 확대하여 '원고뱅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관계 내의 개방적인 정보 유통을 원하시는 께어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 ◆참여업체 : 글이랑/책마을다리/바른글을 위한 자유기고가 모임/사잇소리/컴퍼즐사/프레스커넥션/출판기획 꿈꾸러리
- ◆문의전화 : 271-0494/5 (담당자:이혜선)

「출판정보」의 정기구독은? ◆발간형식:주2회 2권(매주화, 금) ◆판형 및 분량:4*6배판,매권 110여쪽 ◆회비:3개월 10만원, 6개월 18만원, 1년 30만원 ◆연락처:전화 271-0494/5 팩스 277-7301 ◆담당자:최은선(편집기획팀) ◆발송방법:택배 및 우편발송 ◆직접 책을 보고싶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샘플북을 보내드립니다.

「출판정보」가 1994년 7월 19일로 1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2회 2권

출판정보